

[삼보사찰 천리순례 6] 통일 복식으로 신심 높여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08 07:30 댓글 0



(앵커)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지난해 자비순례와 조금 다른 재가자들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재가 대중을 위한 공통 의복이 마련됐다는 건데요. 5조가사를 간소화한 복장으로, 불교 전통에도 부합해 순례대중의 신심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순례자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장대한 걸음을 뗀 지 일주일.

무려 천 리라는 기나긴 순례길 가운데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꼽혔던 지리산을 무사히 넘어 경상남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르내리는 고갯길을 지나 이제 하루 30km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순례단에는 지난해와 조금 다른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순례기간 우바새, 우바이들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줄 통일된 복식이 생긴 겁니다.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9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8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6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 진관사 찾은 행수 "내면 신심 깨달아"
-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
- 물라상가 인도불교 복원·수행지도 자양성
- 3D 프린터로 빛어낸 석불..안한식 전시회

지난해 자비순례 당시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며 불교의 상징성을 드러냈지만, 재가자들은 서로 옷차림이 달라 아쉽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순례하는 재가대중도 스님들처럼 보다 굳건한 신심으로 걸음을 옮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졌습니다.

김용현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원

(다른 분들이, 또 대중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불교신도로서 열심히 걷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불교중흥에 대한 염원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계순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원

(부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것 같아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참 올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갈수록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올해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사를 수한 게 진짜 좋습니다.)

재가자를 위한 천리순례 복식은 5조가사를 보다 간소하게 변형한 '낙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불교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복식이지만 오래 전부터 불교의복 가운데 하나로 편의성을 높인 5조가사입니다.

지난해 자비순례를 마치고 재가자 공통 복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법원스님은 직접 '낙자'를 기획하고 제안해 이번 순례에 도입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불교도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불심을 드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원스님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번에 한 번만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순례가사를 활용해서 본인의 신심을 고취시켰으면 합니다.)

삼보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순례 대중은 단순히 성지를 참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 스스로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분황사는 신라왕경 중심지..유적정비 시급
(삼보사찰 천리순례 14) 호국정신 되새겨
조계종 사노위 “기후위기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10) 지역민들의 배려에 감동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분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나,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E**